



마침내 해냈다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24일 군산 월명구장에서 열린 히어로즈와의 시즌 18차전에서 5-0으로 승리, 정규리그 1위를 확정 한 후 그라운드로 뛰어나오면서 환호하고 있다. 한국시리즈 직행티켓을 거머쥔 KIA는 다음달 15일부터 플레이 오프 승자와 패권을 다툰다. /군산=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선 4기는 실패작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4명 중 1명 꼴 중도 낙마

이정섭 담양군수직 상실

이정섭 담양군수가 24일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2006년 7월 임기가 시작된 광주·전남지역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 27명 중 4분의 1이 넘는 7명이 선거법 위반과 각종 비리로 직위를 상실했다.

또 조형래 곡성군수와 신정훈 나주시장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3년여 동안 광주·전남지역 14개 시·군의 단체장 16명이 각종 비리나 위법으로 재판을 받고, 지방의원도 다수 사법처리돼 '실패한 민선 4기'라는 평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이날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선 4기 기초지방자치단체

민선 4기 직위 변동 단체장

단체장	내용	법원판결	비고
고길호 전 신안군수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재선거
김인규 전 장흥군수	배우자 선거법 위반	배우자 징역 6월 집유 2년	재선거
전형준 전 화순군수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2년 집유 3년(사퇴)	재선거
유두석 전 장성군수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재선거
박희현 전 해남군수	뇌물수수 등	징역 4년	재선거
강종만 전 영광군수	뇌물수수	징역 5년	보궐선거
이정섭 전 담양군수	뇌물수수 등	징역 1년	
박연수 진도군수	뇌물수수	1심 징역 3년 집유 5년	환소심 계류중
신정훈 나주시장	특가법상 배임	2심징역 3년 집유 4년	대법상고·직무정지중

장 기소상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30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중 92명이 임기 중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 중 직위 상실형을 받거나 재판 중 사직해 직위를 상실한 단체장은 33명으로 전체의 13.9%를 차지했다.

특히 광주(5)·전남(22)지역 27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6명의 단체장이 기소돼 이중 직위를 상실한 단체장은 7명이나 됐다. 2명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6명은 재판을 마치고 직무를 수행 중이다.

행 중이다.

중도에 낙마한 단체장 7명 가운데 영광 강종만 전 군수, 해남 박희현 전 군수, 담양 이정섭 전 군수는 뇌물수수, 신안의 고길호 전 군수, 화순의 전형준 전 군수, 장흥의 김인규 전 군수, 장성의 유두석 전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돼 직위를 잃었다.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진도 박연수 군수, 배임죄로 기소된 신정훈 나주시장은 직무정지상태다.

이와 함께 같은 선거에서 당선돼 지방자치 5기를 이끌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지방의원 가운데 26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에서는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5명, 전남에서는 기초의원만 17명이 각각 사법처리됐다. 혐의별로는 광주의 경우 선거법 위반이 6명,

알선수재 1명, 뇌물 1명, 도로교통법 1명 등이다. 전남의 경우 선거법 위반이 7명, 도로교통법 5명, 뇌물 1명, 사기 1명, 상해 1명, 기타 2명 등이다.

이처럼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줄줄이 사법처리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현안사업 추진과 인사 등에 차질을 빚어 행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또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비용을 해당 자단체가 전액 부담해야 해 가뜩이나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광주지방법원 법원장을 마치고 지난 26년간 몸담았던 법원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새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지식, 사랑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민원없는 세상을 꿈꿔드립니다.

오세욱 변호사

사무소: 광주 동구 자갈치동 57-10 11층 1104호 (법원 건물 4층 404호 옆)

☎전화: 062-233-3326, 3327
☎팩스: 062-233-3328

KIA 정규리그 우승

12년 만에 ... 코리안시리즈 직행

숨막혔던 1위 전쟁이 KIA 타이거즈의 승리로 끝났다.

KIA 타이거즈가 24일 군산 월명구장에서 열린 히어로즈와의 시즌 18차전에서 5-0으로 승리하며 지난 1997년 이후 12년 만에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지었다. <관련기사 6·18면>

9월초 5연패에 빠지며 2위 SK에게 0.5게임차까지 쫓겼던 KIA는 지난 15일 히어로즈전 4-3 승리를 발판으로 이날까지 6연승을 달리며 숨가뻐던 1위 싸움을 직접 마무리 지었다.

SK는 전남 삼성을 7-4로 제압하며 17연승으로 프로야구 최다연승 기록을 작성하고도 2위로 시즌을 마감하게 됐다.

KIA의 정규리그 우승은 지난 1997년 이후 12년만이다. KIA는 전신 해태시절이던 1983년 처음으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뒤 1986(후기 우승)·1988(전·후기 통합우승)·1991·1993·1996·1997년 각각 1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KIA는 한국시리즈 직행티켓을 획득하며 'V10'을 향한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 KIA는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7번의 시즌에서 한국시리

즈까지 제패하는 100% 승률을 과시했다.

KIA의 2009년은 도전과 기록의 한 해였다.

두산과의 개막전 패배를 시작으로 3연패로 시즌을 시작한 KIA는 6선발 체제를 도입한 마운드 운영과 LG에서 '해결사'로 돌아온 김상현의 만점 활약을 앞세워 순위 싸움에 속도를 냈다.

그리고 7월28일 롯데에 강우 콜드승을 거두며 단독 2위를 지킨 KIA는 8월2일 삼성을 제물삼아 1위자리까지 올라섰다. 2002년 9월12일 이후 2천516일 만의 1위였다.

1위에 등극한 8월 KIA는 20승을 쌓았으며 월간 최다승 기록까지 세우는 등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 놓지 않고 시즌을 마감하게 됐다.

뜨거운 승리 행진에 야구팬들의 발길도 이어져 24일 군산전 만원을 비롯해 21차례 매진을 기록하며 팀 역대 최다 매진(9번) 기록을 갈아치웠다. 누적관중은 57만2천800명이다.

KIA의 10번째 한국시리즈 우승 도전은 다음달 15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시작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결정

해가 진 뒤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관련기사 3면>

헌법재판소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

해 해당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위헌 결정에 필요한 6인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현행 집서법 해당 조항은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내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21조2항의 취지는 집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집시법 10조는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마음을 열면 따뜻한 세상이 시작됩니다

2009년 9월 25일 금요일

www.posco.com

posco